주간 테러동향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11.2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○ **영국, '버밍엄 연쇄 폭탄테러' 가담자 46년만에 검거**

- 11.19 영국 경찰은 장기 미제사건이자 최악의 오심으로 기록된 '버밍엄 연쇄 폭탄테러'* 가담자(65세)를 북아일랜드에서 체포했으며, 내무부는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공청회 등 공개조사를 검토 중

  * '74.11.21 버밍엄에서 연쇄 폭탄테러(21명 사망, 182명 부상) 용의자 6명이 종신형에 처해졌으나, '91년 경찰 강압에 따른 거짓 자백으로 확인되어 모두 석방되고 미제사건 분류

○ **독일, 테러단체 연계 의심 구호기구에 자금지원 중단**

- 11.23 독일 정부는 이슬람 구호단체 기금인 'Islamic Relief'가 자국에서 활동이 금지된 테러단체 '무슬림 형제단'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어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발표

○ **러시아, 2020년 테러 관련 범죄 33% 이상 증가**

- 11.24 러시아 정부는 '20.1~10월까지 총 170만 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, 이중 테러 관련 범죄는 1,990건(전년 대비 33.3% 증가), 극단주의 관련 범죄는 708건(전년 대비 39.9% 증가)이라고 발표

아 · 태평양

○ **국회, 드론테러 방지를 위한 '안티드론법' 개정 의결**

- 11.19 국회는 미승인 드론이 공항·원전 등 접근시 재밍건(Jamming gun) 등을 사용하여 불법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「공항시설법」 일부개정안*(일명 '안티드론법')을 본회의에서 의결

  * 法 제56조 '드론항행 방해행위 금지조항'에 대테러 활동시 예외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

○ **파키스탄, 160명 숨진 '뭄바이 테러' 주모자에게 징역 10년 선고**

- 11.20 파키스탄 대법원은 '08년 인도 '뭄바이 테러' 기획자로 의심받는 파키스탄 테러단체 '라쉬카르-에-타이바'(LeT)의 공동 창설자이자 그 전위조직인 '자마트-우드-다와'(JuD) 수장인「하피즈 사이드」에게 테러자금 조달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

  * 同人은 '08.11.26 뭄바이 호텔 등 연쇄테러의 기획자(미국·인도에서 지목)로 지난 2월 별개의 테러자금 조달 혐의(2건)로 5년 6개월형 선고

○ **日, 드론 조달시 '내각관방 심사' 등 보안대책 강화**

- 11.19 日 정부는 내년부터「사이버안보기본법」으로 지정된 법인과 정부부처가 드론을 조달할 경우 내각관방에 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, 이는 드론 수집정보·비행기록 등의 외부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로 사실상 중국산 드론이 보안강화를 위해 퇴출될 것으로 전망

  * 보안강화 대상 드론 : △방위와 경비 및 범죄수사, △중요인프라 점검, △조난구조

미 주

○ **미군, 이라크·아프간 주둔군 감축에도 'ISIS 격퇴 지원' 예정**

- 11.20 美 중부사령관「멕켄지」대장은 이라크·시리아에 잔존해 있는 1만여명의 ISIS 전투원의 위협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며, 미국은 향후 이라크·아프간 주둔 미군을 감축*하더라도 ISIS 격퇴를 위해 기존 연합군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중동에서의 임무를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

  * 내년 초까지 이라크에서 2,500명(現 3천명), 아프간에서 2,500명(現 4,500명)으로 감축 예정

아프리카

○ **소말리아, 미군 철수 후 혼란 가중 예상**

- 11.20 뉴욕타임스·VOA는 미군 철수 이후 소말리아 內 테러정세가 악화될 수 있으며, 미군의 지원을 받아 테러 예방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소말리아 대테러부대도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

역사 속 테러사건

Weekly Terrorism Trends

'15년 튀니지 대통령 경호원 수송버스 폭탄테러

○ '15.11.25 오후 북아프리카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대통령 경호원 수송 버스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, 경호원 등 12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

- 조사 결과, 가방을 멘 테러범이 버스에 탑승하여 가방·조끼안에 설치된 10kg 상당의 군용폭탄을 스스로 터뜨린 것으로 확인

○ 사건 직후, ISIS는 자신들의 조직원이 튀니지에서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했다고 배후를 자처

○ 튀니지 당국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폐쇄 및 해안·공항 보안을 대폭 강화

- 또한,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관련자 30여명을 구금하고 무기를 압수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ISIS(이라크·시리아 이슬람국가) >

■ **(목 표)** 시리아·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통괄하는 이슬람국가 건설('04. 4 결성)

* 테러단체 지정 : UN('04.10), 미국('04.12), 캐나다('12.8)

■ **(조직규모)** 약 14,000~18,000만명 추정('19.8, 美 국방부) * 전성기에 최대 약 7만여명

■ **(연계세력)** ISIS-호라산·西아프리카·시나이 지부 등 20여개

■ **(활동지역)** 이라크 서북부 및 시리아 동부 지역

■ **(활동수법)** '19.3월 시리아 內 점령지 상실 이후,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중인 가운데 선전매체 등을 통해 테러 선동

■ **(주요테러)** ① '15.11 프랑스 파리 공연장·축구장 등 동시다발테러(사망 130, 부상 350)
② '17.12 이집트 수피교 사원 폭탄·총격테러(사망 305, 부상 128)
③ '19.4 스리랑카에서 ISIS추종단체의 연쇄테러(사망 259명, 부상 500여명)